

찬송가 301장 (통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뵈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486장 (통 474)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추모 예배 순서

말씀나눔

***예배 전 유의사항** |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예배부름 인도자
지금부터 고(故) 000 성도님(아버지, 어머니)의 00 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찬송가 301장 (통 460) 다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기 도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은이
4장 13-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나눔 말은이

기 도 인도자

찬 송 찬송가 486장 (통 474) 다같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주기도문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 다같이
고(故) 000 성도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나라 전통 의식 중에는 고복의식 혹은 초혼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초혼을 할 때, 돌아가신
분 의 저고리를 왼쪽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고 돌아가신 분의 성함을 세 번 크게 외칩니다. 돌
아가신 분의혼이 이 외침을 듣고 다시 돌아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릅니다. 세 번 크게 불러도 그 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
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고복의식을 통해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
다. 이런 의식을 치르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고복의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만 고복의식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돌아가신 분을 다시 보고 싶었으면 이런 의식까지 치렀을까요?

그러나 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고복의식과는 대조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소녀의 장례식장에 가셔서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
니다. 달리다굼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살아난 소녀를 보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습니
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곳에도 오셔서 고(故)000 성도님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故)000 성도님께 일어나라고 말해서 우리 곁
에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곳에 오시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고(故)000 성도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참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지만, 다시
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슬픔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소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아
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위안이 됩니다. 이 소녀를 살리신 예
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
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마치 이 소녀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여 일어나라.” 그 때가 되면 우리를 포함해서 돌아가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고(故)000 성도님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잘 말씀하는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
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
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
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돌아가신 분들이 더 빨리 복된
자리에 갑니다. 17절에는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간다고 말씀합니
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18절에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고
(故)000 성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때 고(故)000 성도님은 살
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아가신 분이 우리
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맞을 것이라고 서로 계속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
십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십니다. 그 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
(故)000 성도님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
히 살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말을 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